



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http://www.emerics.org/	「이슈&트렌드」
	파키스탄 IMF 구제금융 협상 결렬 배경 작성 윤지현 연구원(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대양주팀)
2018. 12. 06. 인도남아시아	

- 지난 11월 21일, 파키스탄이 IMF에 요청한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협상이 결렬되면서 경제 위기에 대한 대내외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.
-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 10월 11일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으며,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이슬라마바드에서 관련 협상이 진행됨.
 - 그 사이 임란 칸(Imran Khan) 파키스탄 신임 총리¹⁾는 추가 금융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10월 23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60억 달러의 지원 패키지를 약속받았으며, 11월 초에는 대규모 차관을 지원받기 위해 중국을 방문함.
 - 양측은 구제금융 규모와 파키스탄의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 감축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에 포괄적으로 합의했으나 세부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에 실패함.
 - IMF는 파키스탄 정부에 대중국 부채의 속성, 규모, 상환조건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, 최종 협상은 2019년 1월 중순에나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.
- 파키스탄 정부의 금융 지원 요청은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·경상수지 적자와 대외채무가 급격히 확대된 데 기인함.
- IMF는 파키스탄 경제에서 높아진 중국의 영향력의 위협성과 과도한 부채를 야기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경계심을 촉구함과 동시에, 재정·경상수지 적자 심화, 대외채무 급증 등을 지적함.²⁾
 - 유가상승 및 중국-파키스탄 경제회랑(CPEC) 사업 추진에 따른 급격한 대중국 수입 확대로 FY2018 ³⁾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43% 증가한 183억 달러를 기록하며 GDP의 5.9%까지 확대됨.
 - 2018년 총선과 CPEC 사업에 대한 정부 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적자는 GDP의 6.6%로 심화됨.
 - 대외채무는 지난 3년 사이 가파르게 증가해 FY2018 기준 약 950억 달러로 GDP의 33.6%에 이르렀음.
 - FY2018 한 해 동안 증가한 대외채무는 약 109억 달러로 이 가운데 40%가량이 중국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확인되며, 정부 부채는 GDP의 72.5%로 스리랑카 다음으로 아시아 최고 수준을 기록함.
 - 이러한 가운데 외환보유고는 지난 2년 사이 205억 달러에서 103억 달러(9월 말 기준)로 급감하면서 2개월 치 수입대금 지불이 어려운 수준에 처했으며, 같은 기간 파키스탄 루피화는 달러 당 104.8루피에서 124.2루피로 평가절하 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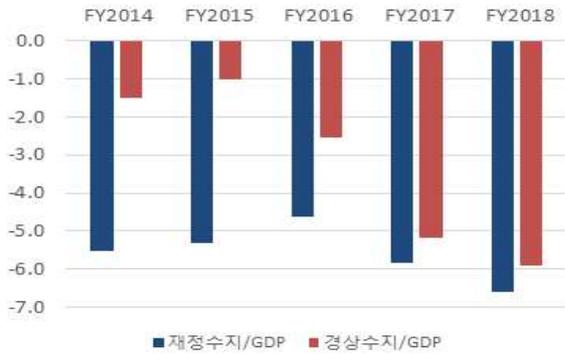
1) 2018년 8월 18일 총리로 공식 취임, 파키스탄정의운동당(PTI) 출신.

2) Press Conference on the Release of the October 2018 World Economic Outlook (2018.10.9.).

3) 파키스탄 회계연도: 2017년 7월 ~ 2018년 6월.

그림 1. 파키스탄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 추이

(단위: GDP 대비 %)



자료: EIU: Annual Report 2017-2018, State Bank of Pakistan (모두 검색일: 2018.11.29).

그림 2. 파키스탄 대외채무 추이

(단위: 십억 달러, GDP 대비 %)



자료: State Bank of Pakistan (검색일: 2018.11.29).

그림 3. 파키스탄 외환보유고 및 환율 추이

(단위: 십억 달러, PPS:USD)



주: 환율은 월말 기준.
자료: EIU (검색일: 2018.11.29).

□ 파키스탄을 비롯한 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으로 부채가 가중되면서 일부 사업을 폐기하거나 재검토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됨.

- 파키스탄 신정부는 CPEC 사업을 재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밝힘.
- 최근 집권한 몰디브 신정부는 중국과의 FTA 합의와 15억 달러의 대중국 부채부담으로 일대일로 참여를 재고하기로 함.
- 스리랑카에서는 함반토타(Hambantota) 항만 건설 사업에 대한 대중국 채무상환을 위해 항구 운영권을 중국에 99년간 이전하기로 결정(2017년 7월)한 이후 최근까지 반(反)일대일로 대규모 시위가 연이어 벌어짐.
- 한편 IMF 최대 출자국인 미국은 중국의 전략이 ‘부채함정외교(debt-trap diplomacy)’라 비판하며 일대일로 사업으로 경제위기에 놓인 국가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해당국들의 부채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. **EMERiCs**

참고자료

IMF, EIU, IHS Markit, 세계은행, 파키스탄 중앙은행, Reuters, Bloomberg 등